"호남을 잡아야 야권 후보단일화 경쟁 유리"

문-안, 광주·전남서 '한가위 大戰'

두 후보 추석전후 방문 민심잡기 총력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호남 쟁탈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호남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및 현재 야권의 '심장부'라는 점에서 호남 민심을 얻는 후보가 야권 후보단일화 경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지율은 안 후보가 크게 앞서=25일 현재 호남 지지율은 안 후보가 문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문 후보보다는 안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1~22일 실시된 국민일보·월드리서치 조사에서 문 후보는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46.1%의 지지를 얻어 안 후보(43.0%)를 앞섰다. 그러나 호남에서는 문 후보에 대한 지지가 33.9%에 불과한 반면 안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적합하다는 호남지역 응답자는 64.2%나 됐다.

리얼미터의 17~21일 주간 조사 결과에서도 문 후보는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9.6%로 38.5%의 안 후보와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호남지역에서는 20%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안 후보의 우위가 확연했다. 광주·전남에서 안 후보가 지지율 55.8%를 기록했지만 문 후보는 31.0%에 그쳤다. 전북에서도 안 후보의 지지율은 53.3%로 과반을 유지했지만 문 후보의 지지율은 36.9%였다.

지난 22일 한국경제신문·글로벌리서치의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문 후보는 호남에서 43.1% 대 51.6%로 열세였다. 특히 이 조사에서 문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에서조차 호남에서 34.2%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쳐, 46.5%의 안 후보와 큰 격차를 보였다.

◇본격화하는 호남 혈투=위기감을 느낀 문 후보는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 후보로서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고 추석 민생 행보를 한다는 게 방문 이유지만, 실제로는 흔들리는 호남 민심을 다독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25일 "본질적으로는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가 호남에서 무소속에 밀리는 상황을 돌려놓기 위해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문재인이 적격'이라고 광주 시민들에게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기구 구성에서도 정책을 맡는 '미래캠프' 산하 '남북경제연합 위원회' 인선을 가장 먼저 완료했으며 이 위원회에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을 지낸 임동원·정세현 전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문 후보는 전날에는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이 모두 호남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

안 후보도 호남 민심을 얻으려 애쓰고 있다. 호남 민심을 얻어야 야권 후보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선출마 선언 직전인 지난 14일 국립 5·18묘지를 전격 참배한 것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 후보는 또 추석 전이나 이후에 호남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 후보 측은 본선 경쟁력뿐 아니라 안 후보의 처가가 여수여서 문 후보보다 심리적으로 호남과 가까운 점을 들어 호남 쟁탈전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권 주자들 '안보·혁신행보'

박, 양구군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장병 위로
문, 도라산역서 역대 통일부장관들과 간담회
안, '복지와 성장 선순환' 정책 네트워크 포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5일 전방부대와 경의선 도라산역을 각각 방문, 안보행보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 양구군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찾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국군 장병의 넋을 위로했다. 이날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박 후보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해 이 땅을 지켰는가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끝까지 찾아서 보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어 21사단 소속 여군 장교와 부사관 등 20여 명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여군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에 맞서, 문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파주시 문산읍 도라산역에서 '평화가 경제다'라는 제목으로 정동영, 임동원, 이종석 등 역대 통일부 장관과 통일 간담회를 가졌다.

문 후보의 이번 도라산행은 집권 후 남북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햇볕정책'의 계승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이날 남북 양측 정부에 대해 ▲자신을 포함한 남북경제위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하고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쌀과 시멘트를 빼고 지원하겠다는 태도는 옹졸한 처사"라며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 수해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는 '혁신 복지'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안 후보는 이날 종로구 관철동 사회적 기업 마이크임팩트에서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 하는 혁신경제'를 주제로 열리는 정책네트워크포럼 '내일'을 주재했다.

안 후보는 이날 포럼에서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 방침에 대해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착잡한 심정이 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다음달 초 '새 정치' 구상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정치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소통과 참여를 위한 정치혁신포럼(정치혁신포럼)' 회의를 주재한 안 후보는 '정당정치와 시민정치의 생산적 결합'을 새 정치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정치 ▲생활 정치 ▲상식 정치 ▲네트워크 정치 등 '4대 정치'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군소 후보들 '캐스팅보트' 쥘까

이정희·민병렬·이건개 출마 선언

18대 대선을 앞두고 군소 후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이 초박빙 구도로 진행된다면 이들이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대표 직무대행은 25일 오전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이정희 전 대표 역시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4·11 총선때 민주통합당과 연대했던 통합진보당이 이번 대선에선 경선을 거쳐 독자 후보를 내는 셈이다.

또한, 옛 자민련 소속으로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건개 변호사도 이날 오후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이에 앞서 '청소년 지킴이'로 불리는 강지원 변호사는 일찌감치 대선출마를 선언, 대선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동반성장 전도사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 역시 제3정당 창당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대선을 완주할지 아니면 중도에 하차하거나 다른 후보와 연대할지 단언할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선 대선 판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간 3자구도가 팽팽하게 끝까지 가거나 야권 단일화를 통해 여야 후보 간의 1대1 구도로 정리되면서 판세가 접전 양상으로 흐를 경우 이들 군소후보의 영향력을 아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후보들은 여론조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7~21일 성인남녀 37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선후보 다자대결에서 이정희 전 대표는 3.6%, 강지원 변호사는 3.9%의 지지율을 각각 얻었다

박빙 승부가 펼쳐졌던 15대 대선(김대중-이회창)과 16대 대선(노무현-이회창)에서 1~2위의 득표율 격차가 각각 1.6% 포인트, 2.3% 포인트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두 후보의 지지율은 경우에 따라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는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경각심 갖고 일해달라"

악재 잇따르자 의원·캠프 관계자에 당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자신의 과거사 인식 논란과 관련한 대응 혼선과 잇단 측근비리 의혹, 주변 인사들의 '설화' 등이 이어지자 최근 당 소속 의원과 캠프 관계자 등 주변 인사들에게 긴장감을 갖고 일해줄 것을 강하게 당부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한 핵심측근은 이날 "후보는 캠프뿐 아니라 당 소속 의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한 건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 당원들 모두 12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 살아나고 있다는데 후보가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당부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준길 전 공보위원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 금태섭 변호사에게 '불출마 협박 전화'를 했다는 논란을 일으켜 파문을 일으켰고, 김병호 단장은 기자들과의 오찬 과정에서 박 후보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입장을 언론에 잘못 전달, 임명 한 달도 안돼 전격 교체됐다.

또 대변인에 내정됐던 김재원 의원은 박 후보의 과거사 사과 기자회견 전날 기자들과의 만찬 과정에서 취중 막말로 논란을 자초, 24일 밤 자진 사퇴했다.

최측근인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기업가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등 박 후보 주변에서 계속 악재가 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상돈 정치쇄신특별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선후보의 '인혁당 발언' 논란은 참모진의 미숙한 대응에서 증폭됐다고 비판하며 '박근혜 캠프'의 인적쇄신 필요성을 거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영순 도당위원장 취임 새누리당 주영순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 및 전남도당 국민안전 운동본부 발대식이 25일 오후 도당 강당에서 열렸다. 주 위원장이 전남지역 위원장들을 소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선관위, 추석전후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선과 관련, 추석 전후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사전선거운동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 있는 조직·단체, 국회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활동을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명절 인사 등 명목으로 모임을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의 경우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도산동[교회]	순천조례 [상가,주차빌딩]	영암삼호 [근린시설]	월곡동[찜질,헬스]	치평동[일반음식점]	화정동[예식장]	전주우아동[나이트]
대772㎡,건786㎡	대2136㎡,건5647㎡	대777㎡,건1152㎡	대1570㎡,건4742㎡	대98㎡,건568㎡	대1094㎡,4489㎡	대1794㎡,건3968㎡
감정가 9억5천	감정가 43억1천	감정가 9억1천	감정가 76억8천	감정가 11억9천	감정가 41억5천	감정가 47억4천
최저가 5억3천	최저가 15억4천	최저가 4억1천	최저가 27억5천	최저가 6억1천	최저가 21억2천	최저가 19억4천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금동[목욕탕]	광주 쌍암동(유흥시설)	담양금성(공장)
▷대지 91평 ▷건물 303평 ▷감정가격 10억 ▷매매가격 4억7천(협의후결정)	▷대지 1520평 ▷건물944평 ▷감정가 89억7천 ▷매매가 40억 (협의후결정)	▷대지 1482평 ▷건물 299평 ▷감정가 7억 1600만 ▷매매가 5억 (협의후결정)
용봉동[하미스포렉스]	**울산울주(숯가마)**	**전북완주 봉동 공장**
▷대지 4076평 ▷건물 12943평 ▷감정가 515억7천 ▷매매가 160억(시설비별도)	▷대지 2455평 ▷건물 445평 ▷감정가 18억2천 ▷매매가 8억 (협의후결정)	▷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감정가 135억 ▷매매가 80억분할가능(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종원이사 010-8227-7759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 매매
▶ 쌍촌동 운천저수지 건너편 명지아파트 옆
대지 427평(매매가 7억6천8백60만원)
평당 180만원

아파트/빌라 박미란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연이사 010-9611-2817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 광주대앞(지하)호프,분식60평,원룸형빌라(산수동,백운동)5칸, 계림동 E마트1층1칸
대출 +보증금공제후 실인수가 1천만원 (H.010-6654-6888)

경매투자 부실채권 특수물건
경매상담
1.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2.특수물건 해결방법 제시
3.NPL 매입/투자비법 전수
4.단독/공동투자 가능
5.교육/임장비등 회비 550만원
소액투자자 대환영!
친절상담 H.010-3605-5000
[주]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